

제8절 상량문(上樑文)

1. 정(亭)

1) 망양정(望洋亭)

(1) 석병 정원기의 망양정 이건 상량문(石屏 鄭願基 望洋亭移建上樑文)

바다는 천하에서 제일 커서 한도 끝도 없고, 물 보는 것도 기술이 있다. 정자는 세월과 같이 흘러 왔으니 새 것이 어찌 옛 것만 하랴. 오직 저 산이 바뀌 있을 뿐이라네. 바다 위 우뚝한 저 정자는 자미원(紫微垣)과 은하수(銀河水)를 이고 있고, 나라님의 문장이 밝게 빛나니 바로 이것이 관동팔경이라네. 서쪽으로 황하의 근원에 통하며 선객(仙客)이 띠배를 타고 오셨다네. 돌아보면 그 경치 모두가 여지승람(輿地勝覽)에 올라 있는데 저승의 극락인지 이승의 인간 세상인지 분간할 수 없지만 이승 저승 합쳐서 제일이라네. 옛터는 멀지 않는 이웃에 있었는데 좌우의 호수와 산은 다소 빼어나지만 중건할 겨를이 없었다네. 길가는 사람들이 빼어난 경치를 아쉬워하였지만, 영랑(永郎)·술랑(述郎)의 놀던 터는 지금은 비바람에 무너졌다네. 명승지의 흥함과 폐함도 무상하여 옛날엔 문무가 모여 풍악이 질펀하던 곳이지만 지금은 기왓장과 자갈만 쌓였네.

우리 군수님 진공(陳公) 필덕(弼德)이 오신지 3년에 명망이 높고 우아하였으며 정자가 오랫동안 무너진 것을 한탄하였다네. 일군(一郡) 사람들이 복원해야 한다고 노래 노래하며 등자경(滕子京)이 화악루(和岳樓)를 중건하듯이 해주길 고대하였다네. 새롭게 옮겨 지을 자리는 백리 안의 산천들이 빼어남을 뽐내고 있어서 이곳으로 옮겨올 것을 여러 사람에게 자문하였더니 윤삼월이 조금 한가해서 좋다네. 백성들이 아비 일에 자식이 오듯 모여 와서 산의 나무와 벽돌과 바다의 돌들을 다투어 함께 모아 왔는데 위치는 동헌에서 정남방 10리 허에 잣나무 소나무 어우러져서 장관을 이루고 있는 곳이라네. 누가 옛 정자보다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으랴. 어느 물 어느 산 어느 나무 어느 언덕을 막론하고 어부는 노래하고 초부(樵夫)는 피리 부니 이를 일러 아름다움이라 하네. 새로운 정자는 서에서 동에서 남에서 북에서 구름 삼과 바람 돛대이고, 해안의 소나무는 맑은 바람이요, 구름 사이 난새와 학은 조화의 울음이다. 비래봉이 푸른 하늘에 반쯤 떨어지고, 봉황대(鳳凰臺) 아래의 해당화에 성긴 비 내리고, 갈매기와 백로는 긴 날 봄꿈을 꾸네. 강물은 절벽 위 연자루(燕子樓) 앞을 휘감아 돌아가나 잘 알지 못하지만, 소상의 동정호가 어찌 이곳만 하겠는가. 이야말로 봉래(蓬萊)의 누대라 아니할 수 없으니 들어서 알지만, 풍호(豐鎬)의 경치도 이만 못할 것인즉 완전히 황홀무제한 대명(溟溟)의 세계로다. 진시황(秦始皇) 당일의 동남동녀를 태운 배는 돌아오지 못하여 일방(一方)

에서 선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공자님도 띠배 타고 오시고자 하셨으니 몇천 년 예의의 나라라 하였다네. 드디어 장로(張老)와 같이 노래나 불러볼까.

어흐랑차 달구, 이집 지은 동쪽에는 무엇이 자랑이고 두루 살펴 찾아보자. 자라 거북이 창공에서 신나게 춤을 추고 닭은 울어 무릉도원의 나무들을 깨우누나. 어흐랑차 달구, 이집 지은 서쪽에는 만국을 크게 밝힐 햇빛 붉그레 솟았구나. 12봉 꼭대기에 구름 안개 가랑비 내리는데 기나긴 춘양대(春陽臺)에 신녀가 꿈을 꾀다. 어흐랑차 달구, 이집 지은 남쪽에는 은근한 미인봉이 그림처럼 앉아 있네. 남극성 노인성이 하늘가에서 서광을 발산하니 우리 님 두고두고 만수무강 하실지고. 어흐랑차 달구, 이집 지은 북쪽에는 백배산(百拜山) 높은 봉에 만세삼창 소리소리 대붕(大鵬)이 높이 날아 구름 위에 나래 펴고 장풍(長風)이 부는 날에 남쪽으로 날으겠지. 어흐랑차 달구, 이집 지은 위 쪽에는 햇빛이 난간 끝을 지나가도 여름을 모른다네. 모든 신선 이 곳에서 쉬었다 가시는데 내려다보니 호해(湖海) 풍류가 그만이네. 어흐랑차 달구, 이집 지은 아래쪽은 웃으며 농사하고, 노옹들의 격양가 소리 높은 강구의 들녘이네. 수십 수천 짝을 지어 여기 저기 농사하니 봄 일이 하도 바빠 설 틈이 전연 없네.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집 지은 후에 지경 안이 두루 태평하고 강산이 새롭게 보일지며, 바다도 풍성 강도 맑아서 국가의 기반이 크게 번창하고 지방의 풍속이 순후하여 백성들의 생활이 탄탄하도록 하옵소서.

승정 기원후 4경신(崇禎紀之後四庚申 一八五八)

상지 즉조 11년 윤3월 6일 정원기 씀(鄭願基書)

현령(縣令) 이희호(李熙虎)

성조도감(成造都監) 신명호(申命昊)

공조(工曹) 임학영(林鶴英)

감관(監官) 주선호(朱善浩) 이유정(李儒正)

색리(色吏) 장성유(張性維) 장병두(張秉斗)